

## 거세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

### - 흥 보 부 -

대부분의 양돈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아직 웅돈을 거세하고 있다. 이는 육가공업자와 소비자의 요망에 의한 것이다. 육가공업자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웅돈보다도 거세돈을 요구하고 있고, 약용의 고기는 냄새가 난다고 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다.

텍사스공과대학의 가축학자들은 미국의 양돈업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즉,

① 거세가 자돈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.

② 거세된 자돈의 피해는 투약에 의해 보충할 수 있는지.

③ 거세가 고통을 많이 준다면(특히 일령이 경과된 돼지) 어떠한 약품으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.

그들은 또한 위와 같은 문제는 거세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(특히 가축보호운동가)을 위해서라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.

연구자들은 거세한 웅돈과 거세하지 않은 웅돈을 비디오테입에 기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.

① 14일령에서 거세된 돼지는 거세되지 않은 돼지에 비해 수

유시간이 10% 단축되고 누워 있는 시간이 7% 늘어났다. 또한 7주령에서 거세된 돼지는 거세되지 않은 돼지에 비해 사료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.

② 국부마취는 14일령인 자돈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7주령에서의 거세에는 효과가 없다. 전신마취는 거세중에 자돈을 잠재울 수 있지만 거세후 8시간 이후의 고통을 줄일 수는 없다.

③ 자돈이 받는 고통은 1~20 일령까지의 어느 시기에서 거세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.

④ 14일령에서 거세한 돼지는 1일령에서 거세한 돼지보다도 이유체중(29일령)이 컸다(표 1).

그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14일령에서 거세한 자돈은 웅성

호르몬(테스토스테론)의 생리 작용을 받을 수 있지만 1일령에서 거세한 경우에는 중요한 시기의 수유행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. 그러나 그들은 거세에 의한 영향이 출하일령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.

⑤ 진통제(아스피린 등)는 일반적으로 거세의 고통을 약화시켜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. 또한 자돈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는 아스피린 뿐이다.

텍사스공과대학팀은 양돈업계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.

(1) 거세돈보다도 웅돈사육 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방법, 돈육처리기술의 개발,

(2) 자돈의 고통을 감소하는 약품개발과 코머셜 농장에의 보급.

〈표1〉 1일령에 거세한 웅돈과 14일령에 거세한 자돈(雌豚)의 능력비교

구 分	웅 돈		자돈(雌豚)
	1일령 거세	14일령 거세	
조 사 두 수	191	214	339
이 유 두 수	173	199	313
사 망 률(%)	9.4	7.0	7.7
출 생 시 체 중(파운드)	4.1	3.9	3.8
이 유 시 체 중(파운드)	15.8 <sup>a</sup>	16.4 <sup>b</sup>	16.2 <sup>a,b</sup>
평균 1일 증체량(파운드 <sup>e</sup> )	0.41 <sup>c</sup>	0.43 <sup>d</sup>	0.42 <sup>c,d</sup>

a,b 유의차 있으며 위험률( $P<0.06$ ) c,d 유의차 있으며 위험률( $P<0.05$ )

e 수유기간은 평균 29일